해남, 캐나다 수출확대 '에이마트와 업무협약'

오는 6월캘거리 현지서 지역 특별전 개최… 농수산물 수출 가속화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캐나다 캘거리 소재의 에이마트(A-Mart)와 해남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에이마트(대표 최병화)는 캐나다 캘거리에 3개 매장을 보유한 아시아 식품판매 전문마트로 해남군은 협약을 계기로 해남의 우수 농수산물을 캐나다로 수출할 초석을 마련했다.

해남군은 지난 3월 업체 관계자와의 사전 미팅을 시작으로 관내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과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수출 가능성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가올 6월에는 캘거리 현지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판촉행사에는 제품 진열 및 판매 뿐 아니라 해남군의 문화와 역사 등을 캐나다에 알리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영상제작 및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에이마트 정찬석 총괄본부장은 참석해 해남군 농수산식품의 수출 제품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해남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캐나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해남-푸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월 미국 올타리사에 이어 캐나다 에이마트와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수출에 본격적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수 농수산 수출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 온라인 시장 진입과 러시아, 독일, 일본 등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자 수출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군민의 날·화합 한마당' 내달 1일 개최

체육경기, 읍 · 면 노래자랑 · 경품추첨 등 행사 진행

강진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의 장, '제53회 강진군민의 날 및 군민화합 환마당' 행사가 오는 5월 1일 강진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강진군민의 날'은 1973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 여건과 군민 의견을 반영해 여러 차례 날짜를 조정했으며, 2001년부터 '강진'이라는 지명의 역사성을 담아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어르신 댄스 공연, 사물놀이, 태권무도 퍼포먼스를 통해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어서 읍 · 면 선수단과 군민 대표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된다.

이후 진행되는 읍 · 면대항 체육행사에서는 윷놀이, 에어봉 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씨름, 게이트볼, 축구, 배구 등 총 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축구와 배구는 영랑 · 청자 · 다산 · 하멜 등 4개 권역 대항전으로 운영돼 군민들이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제1실내체육관에서 읍 · 면대항 노래경연이 열리며, 초대가수 진이랑 등이 출연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군민의 날을 기해 군민의 화합을 다지고, 강진군민의 역량을 재결집해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서(西)강진 시대'를 여는 힘찬 출발의 기회로 삼는다.

/강진=김경선 기자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제15회 전국대회 출정식 개최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신안군 수협 본점에서 제15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바다와 미래를 잇는 수산업경영인! 상생의 바다, 여수에 어우러지다!'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는 수산업경영인 10,000명이 참석하는 수산 분야 전국 최대 행사로 28일부터 30일 까지 사흘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150명의 회원이 참가하며, 수산물 기자재 견학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업인 설명회에서 '수산 신안'을 알릴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출정식에서 "어업인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수산업경영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수산 지식을 공유하는 알찬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신안=정경욱 기자

순천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구축' 공모 선정

다중활용장소 13개소에 지능형 치안인프라 설치… 시민 안전체감도 강화

순천시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구축 사업'은 특별한 동기 없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안전사각지대에 방범 CCTV, 지능형관제시스템 등 범죄예방 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투입해 에코그라드호텔 뒤편, 순천공고 상가 주변 등 다중이용지역 13개소에 대해 CCTV, 비상벨, 지능형관제시스템 등 방범시설을 집중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해 이상행동이나 위험상황을 조기에 감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형관제시스템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각종 사건 ·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의 노력이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해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에도 이상동기 범죄예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천그린광장 일원 12개소에 방범 CCTV와 지능형관제시스템 등 안전대응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목포,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목포시는 저출생 · 고령화 등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5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목포시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최근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복지재정 불균형 등의 인구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일상 속에서 시민 모두가 인구위기 극복의 주체로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은 "앞으로도 목포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영암, 월출산 설화 AI 애니메이션 상하이문화상회에 소개

중국 대표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서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관람

월출산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애니메이션이 중국 문화단체에 소개됐다.

영암군이 지난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의 '전남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제작한 <금마왕자와 월출산 낭자>를, 23일 중국 상하이문화상회(회장 양전화) 한국 방문 대표단이 관람했다.

상하이문화상회는 상하이시 공상업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영상 · 예술 ·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120여 기업들이 회원이다.

양 회장을 포함한 문화상회 대표단은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문화콘텐츠 산업을 보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들을 맞아 <금마왕자와 월출산 낭자> 등 6개의 전남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어 문화 콘텐츠 교류 등 전남과 상하이시의 협력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상영 이외에도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는 올해 서울국제AI영화제 '애니메이션 숏츠' 부문 대상, 모스크바 국제 아동영화제 '생성형 AI 영화' 부문' 대상을 받는 등 국내 · 외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지역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열어 아이들이 월출산의 설화를 문화 콘텐츠로 알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늘나라 금마왕자와 월출산 지킴이 월출산낭자의 사랑을 월출산 구정봉의 아홉 개 우물과 연결한 이 애니메이션은, 현재 영암군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오일시 · 인지 2개 지구…1071필지, 47만 6808㎡ 대상

진도군이 최근 고군면 오일시 마을, 지산면 인천 · 독치 마을에서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하고 종이에 등록된 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절차 ▲토지 현황조사 ▲경계 설정 기준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역할 ▲조정금 산정 방법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진도군은 지금까지 34개 지구 8489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지난 2024년에 시작한 7개 사업지구 1211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국비 2억 2,538만 원을 지원받아 고군면 오일시와 지산면 인지, 총 2개 지구(1,071필지, 47만 6,808㎡)의 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며,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모바일 완도사랑상품권 선할인→캐시백 적립 변경

완도군은 행정안전부의 기조에 따라 5월 1일부터 모바일 완도사랑상품권(카드 포함) 구입 시 선 할인에서 캐시백 적립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류형 완도사랑상품권은 기존의 구매 방식(할인율 10%, 월 구매 50만 원)을 유지한다.

기존 모바일 완도사랑상품권 구매는 선 할인 방식으로 충전 시 충전 금액의 10%를 즉시 할인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일부 부정 유통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결제 시 결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캐시백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품권 50만 원을 5만 원(할인율 10%) 할인받아 45만 원에 구매했으나, 변경 후에는 상품권 50만 원권을 50만 원으로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사용 시 사용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적립 받게 된다.

캐시백은 추후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면 되고, 양도는 할 수 없다.

모바일 완도사랑상품권은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설치한 다음 회원 가입 후 계좌를 연결하여 금액을 충전하면 QR결제로 바로 사용 가능하다.

또는 카드를 발급받아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완도사랑상품권 캐시백 운영은 기존의 선 할인보다 지역 내 소비 규모가 늘어나고 빠른 소비 유도가 가능해짐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이두식 기자

장흥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통합적 지원 플랫폼 구축

가족상담 · 문화교육 등 문제 예방 · 조기정착 지원

장흥군가족센터가 지역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장흥군가족센터는 2009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22년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장흥군가족센터로 통합됐다.

이후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한 곳에서 통합지원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났다.

장흥군가족센터는 장흥군 총 인구 대비 약 2.7%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

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흥군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비롯해 ▲배우자 부부교육 ▲성평등교육 ▲인권감수성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기초 인권과 가족 내 역할 조율을 위한 교육사업을 집중 운영 중이다.

또한 ▲자녀 성장지원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자녀 대상 프로그램도 다각도로 추진하며 다문화가족의 다음 세대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국어 상담원 배치 ▲통 · 번역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 지원 사업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과 같은 가정 밀착형 지원체계에는 보듬매니저를 직접 파견해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를 병행한다.

이러한 통합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애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둘째, 학령기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미래설계를 고려한 부모-자녀 관계 향상 지원, 셋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통합형 가족지원 플랫폼 구축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광양,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회의

재산 피해최소화 · 인명피해 제로화 총력

광양시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기홍 부시장 주재로 '여름철 풍수해(호우 · 태풍)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대형화 ·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침수 우려지역 ▲저수지 ▲공동주택 지하공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계획 수립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도로 빗물받이, 농경지 침수, 배수펌프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서별 점검과 대응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됐다.

광양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하천 둔치 주차장 ▲세월교 ▲저지대 등 하천 범람 예상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마을 방송과 재난안내문자(CBS) 등을 통해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기홍 부시장은 "최근 기상이변이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양상도 대형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 방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는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취약시설을 철저히 사전 점검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조순익 기자